

장흥군청사 부지 52년만에 군민 품으로

전국 지자체 유일 임대료 납부
郡 전담기구 설치 끈질긴 협의
기재부 무상양여 최종 결정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사용료를 받아오던 장흥군 청사부지(광주일보 2014년 12월 1일 13면)를 무상 양여하기로 결정했다.

장흥군은 “기획재정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국유지인 장흥읍 건산리 본청부지 5843㎡에 대한 무상 양여가 최종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조치로 장흥군은 32억여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용을 절약하고, 부지사용료 지급에 따른 군민의 자존심도 회복했다.

장흥군 청사부지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로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2011년 국유재산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2014년에 6600만원 등 매년 부지사용료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해 그



기획재정부가 무상 양여하기로 확정된 장흥군 청사부지.

동안 임대료 징수를 두고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군은 청사 무상양여를 민선 6기 군정운영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자료수집 등 본격적 준비에 나섰다.

민·관 합동으로 전담기구까지 만들어 나선 결과 당초 청사부지는 일본인(김자섭 명)의 소유였다가 1949년 귀속재산 처리법과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로 귀속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1962년 귀속재산 국·공유와 심사위원회에서 국·공유재산으로 의결돼 1963년 내무부와 재무부에서 시행한 ‘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사용중인 국유재산의 양여대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장흥군은 1963년 군청사 부지의 양여를 신청한 공문서나 기록이 없어 어려움을 겪

었으나, “일본인 소유의 대다수 전국 청사 부지가 해당 지자체로 무상양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장흥군만이 무상 양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군청사 부지가 당시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국유지임을 고려할 때 무상양여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실제로 영광군의 경우 지난 2011년 12월에 기재부로부터 청사부지를 무상 양여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군은 청사부지의 연혁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1949년 전후해 현 부지에 군청이 있었다’는 당시 우체국장의 증언 등을 확보해 기획재정부에 수차례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이번에 청사 부지를 최종적으로 무상 양여받게 됐다.

김성 군수는 “장흥군의 심정과도 같은 장흥군 청사부지가 52년을 돌아 군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면서 “군청사의 무상양여 결정으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게 돼 감격스럽다. 이번 일을 교훈삼아 군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미루지 않고 책임있는 대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청자 매출 30% 이상 증가

판매장 개장 이후...민화뮤지엄 개관 겹쳐 관광객 몰려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에 위치한 강진청자판매장 내부.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에 위치한 ‘고려청자촌’ 일대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 아닌 ‘머무는 감성여행’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체류형 관광벨트로 탈바꿈하고 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주말이면 3000여명(무인계수기 측정)이 찾는 도암면 가우도 관광역을 청자촌으로 유도한 결과 지난 2일에만 청자매출액이 8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전년 대비 청자판매장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다.

이곳에는 기존 강진 청자박물관 외에 청자판매장과 토속적인 그림인 민화(民畵)를 주제로 한 국내 최대 전시관이 최근 개관했다. 군은 한국민화뮤지엄 맞은 편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해 주말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객의 오감(五感)을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한국민화뮤지엄은 청자박물관과 함께 청자촌 일대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감성여행’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체류형 관광벨트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들 달에는 청자촌 중심부에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려청자 디지털박물관’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최신 디지털 기술을 고려청자에 접목시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첨단 전시·체험시스템을 구축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군은 고려청자와 민화에 이어 제3의 박물관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

군은 청자·민화 박물관과 함께 문화의 품격과 대표성, 미래 비전까지 담아낼 명품 콘텐츠를 확보해 청자촌 일대를 거대한 문화유산 답사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영암군 신북면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

영암군 신북면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가 들어섰다.

영암군과 신북농협은 지난 6일 신북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동평 군수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등 각계 인사와 8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총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산지유통센터는 부지 7661㎡, 건물 2개 동(2351㎡)에 집하장과 선별장, 저온저장고, 선별포장기, 위생설비 등 현대화된 설비를 갖췄다.

이곳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 등 원예농산물 3개 품목을 2600여t을 선별·포장·출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산지유통센터 준공으로 변화하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역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현대화된 시설 구축으로 유통의 거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의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생산부터 유통·판매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엄격한 품질관리로 최적의 농산물을 상품화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APC건립으로 인한 실질적인 혜택이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



내고장 명소 특별한 외출

최근 ‘제43회 강진 군민의 날’을 맞아 강진지역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 등 100여명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암면 가우도를 방문해 출렁다리를 건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휠체어를 밀고 함께 식사를 하며 이번 날들이 길을 안내했다. <강진군 제공>

최근 ‘제43회 강진 군민의 날’을 맞아 강진지역 장애인과 거동불편 노인 등 100여명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암면 가우도를 방문해 출렁다리를 건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20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휠체어를 밀고 함께 식사를 하며 이번 날들이 길을 안내했다. <강진군 제공>

장흥군 17개 오지마을 ‘100원 택시’ 운행 개시

장흥군이 지난 1일부터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6개 읍·면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100원 택시’ 운행을 개시했다.

‘100원 택시’는 민선 6기의 공약사항 중 하나로 읍·면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

고,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추진됐다.

군은 ‘100원 택시’ 운행에 앞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17개 마을에 방문해 이용방법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100원 택시’ 운행은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로 한정되며, 군에서 발행한 이용권과 현금 100원을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택시 운전자에게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이용권은 마을별 인구수에 비례해서 매월 마을위원회에 배부한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 유기농 농산물 인증 2배 늘린다

현 2956ha 2018년까지 4151ha 이상으로 확대

장흥군은 오는 2018년까지 유기농 농산물의 인증면적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장흥군은 지난해 말 2956ha이던 친환경 인증(유기농, 무농약)을 받아 비율 면에서 전남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유기농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기술교육 전담반을 구성하고, 품목과 재배 시기별로 현장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작물에 따라 연구회 모임도 활성화해 신기술과 농자재 제조기술 등의 정보교류 또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면과 유지면 4개 마을을 선정해 100% 친환경 유기농업지역으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지역을 늘려가기로 했다. 특히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을 비롯해 고사리, 햇개나물, 황칠, 취나물 등의 임산물의 100% 유기농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부터 정부정책으로 저농약 인증이 완전 폐지되고, 유기농 중심으로 인증단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 같은 시책을 마련했다.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인식수준이 높아진 것도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 장흥군은 총경지면적의 25.3%가 친환경 인증(유기농, 무농약)을 받아 비율 면에서 전남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유기농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해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기술교육 전담반을 구성하고, 품목과 재배 시기별로 현장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작물에 따라 연구회 모임도 활성화해 신기술과 농자재 제조기술 등의 정보교류 또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가의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수수료 90%를 지원하고, 1ha 당 유기농은 120만원, 무농약은 70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유기농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민들이 흘린 땀만큼 제값을 받는 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편의점, 공인중개사사무실	잔여 128㎡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25,000원(4층 27,000원)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7570-7525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수완 현진에버빌 임대

▶ 광산구 수완동 933번지 1층(53평)
정남향 / 초중고인접 / 즉시입주가

◆ 보1억5천만원 / 월100만
◆ 전세 3억8천만원

월산동 빌라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4층
20평 / 정남향 / 신축 내부개끗 / 주차시설/방2 거실1개

◆ 보500 / 월43만 안고가
◆ 대출 4900만원
◆ 매매 9500만원

분양권 매매

▶ 서구 농성동 골든힐스타워 12.5평
광주 서구 농성동 417-18번지 12.5평
422세대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 6월초 입주예정

◆ 분양가 7150만원
◆ 매매가 5700만원(일시불 완납)

오피스텔(임대/매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5평
광주 동구 불로동 23-2번지 49
현성업종 / 상권최상
권리금 저렴 / 즉시입점 가능

◆ 임대 보300만/월25만
◆ 매매 3500만원

674 - 2006